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5면)

## “위례~과천선 두데미·북위례역 신설 송파구 나서야



### 채승우 송파구의원 (거여1, 가락2, 문정1동)

채승우 송파구의원(거여1, 가락2, 문정1동)은 “위례~과천선은 정부과천청사와 문정법조타운을 기점으로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Y자형 노선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 제안공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등을 거쳐 구체적인 노선과 정거장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부계

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역의 교통수요와 송파구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지난해 3월 송파구민 1만697명이 두데미역·송례역·북위례역 신설을 요청하는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 시의회에서 채택돼 서울시청에 제출, 시의회에서 채택돼 서울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두데미역은 문정1동 주민들이 위례~과천선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사이며, 북위례역도 북위례 지역의 철도교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올 하반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공청회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 위례~과천선 연장 노선 조정 필요성을 국가계획에 제시하고, 두 역의 신설안을 후속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